

## 2027학년도 EBS 수능특강 독서

## 제 4 강 사회·문화

분석지

★ 트랙국어학원 ★

## ■ [지문으로 이해하기] [01~05] IS-LM 모형과 IS-MP 모형

## ★ 학생 안내 — 이 자료 활용법

이 자료는 트랙국어학원이 제작한 학생 배포용 복습 자료입니다.

2027학년도 EBS 수능특강 독서 4강 (사회·문화) — 지문 분석 해설지입니다. 지문과 함께 읽으며 각 문단의 논리 구조를 이해하고, 출제 포인트 섹션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지에는 지문 분석 외에도 기출 연계 개념, 심화 설명, 최신 시사 연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설지 전용 부가 설명(◆ 박스)은 시험 대비 배경 지식 확장을 위한 것이므로 꼼꼼히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 ◆ 이 지문의 핵심 구조를 파악하자! 케인스 경제학의 발전 흐름을 시간 순서로 따라가는 글입니다.

고전학파 비판 → 케인스의 총수요 관리 → ㉠IS-LM 모형 (1950~60년대) → 한계 → ㉡IS-MP 모형 (신케인스학파) 순서로 읽으면 흐름이 잡혀!

특히 ㉠과 ㉡의 차이점 (중앙은행을 외부 vs 내부 주체로 보는가, 통화량 vs 금리를 정책 수단으로 삼는가)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 [1문단] 고전학파 비판과 케인스 경제학의 등장

근대 경제학은 국민 소득, 물가, 고용, 경기 변동 등 경제의 거시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모형을 ㉠발전시켜 왔다. 고전학파는 시장의 자율 조정 능력을 강조하며, 가격과 임금의 유연성을 전제로 완전 고용이 자연스럽게 달성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20세기 초 대공황을 계기로 시장의 자율 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는 케인스 경제학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케인스는 총수요\*가 자동으로 총공급\*에 맞춰진다고 보는 고전학파의 이론을 비판하며, 낮은 총수요가 소득의 감소 및 실업률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정부 지출 확대 등 정책 개입을 통해 총수요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 핵심 대립 구도: 고전학파 vs 케인스

고전학파: 가격·임금 유연 → 완전 고용 자동 달성, 시장 자율 조정 신뢰, 정책 개입 불필요

케인스: 낮은 총수요 → 소득 감소·실업 상승 가능,

총수요가 총공급에 자동 맞춰지지 않음 → 정부의 정책 개입 필요

☑ 20세기 초 대공황이 고전학파 비판의 계기 → 케인스 경제학 등장

## ◆ 경제 사상사로 읽는 거시 이론의 흐름 — 이념과 이론은 함께 움직인다!

### ▶ 고전학파 → 자유주의 (Liberalism / 19~20세기 초)

“시장은 스스로 균형을 찾는다” → 정부 개입 최소화, 가격·임금 신축 조정을 신뢰.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 보장이 최선이라는 입장.

### ▶ 후대 케인스주의자 (IS-LM 모형) → 수정 자본주의 (Mixed Economy / 1950~60년대)

“시장 실패를 정부가 보완해야 한다” → 적극적 재정 정책·복지국가 확대. 정부 지출로 총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실업과 불황을 막는 핵심.

☑ IS-LM 모형은 이 시기(1950~60년대) 거시 경제 정책의 이론적 토대였습니다.

### ▶ 신케인스학파 (IS-MP 모형) →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 1980년대 이후)

“재정보다 통화 정책 중심의 안정적 관리!” → 물가 안정 목표제, 중앙은행 독립성 강조.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 팽창보다 중앙은행이 금리로 미세 조정.

☑ IS-MP 모형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생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설명하며 이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 경제 이론은 그 시대의 사회·정치적 필요에 응답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고전학파→케인스→신케인스는 단순한 이론 진보가 아니라 자유주의→수정자본주의→신자유주의라는 이념 지형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 ▶ [2~3문단] ㉠ IS-LM 모형 — 상품 시장 + 화폐 시장의 동시 균형

이후 후대의 케인스주의자들은 케인스의 총수요와 관련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IS-LM 모형을 고안하였다. 이 모형은 상품 시장과 화폐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통해 단기 국민 소득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IS 곡선은 이자율 변화에 따라 국민 소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이자율이 낮아지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여 국민 소득이 상승하고 소비가 ㉡촉진된다. 반대로 이자율이 높아지면 투자가 감소하여 국민 소득과 소비가 줄어든다. 이처럼 이자율이 변할 때마다 새롭게 형성되는 국민 소득 수준들을 연결한 것이 IS 곡선이며, 일반적으로 <그림>처럼 우하향하는 형태를 띤다.

한편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활동이 많아져 화폐 수요가 늘어난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통화량을 경제 내부에서 결정할 수 없는 요인으로 간주하여 외생적으로 일정하게 고정해 두었다면, 이는 이자율이 변해도 공급되는 돈의 양은 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소득 증가로 화폐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이에 따라 화폐 수요 초과 상태가 발생한다. 이때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가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상승해야 하는데, 이자율이 높아지면 예금이나 채권 같은 이자를 주는 자산으로 바꾸려 하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려는 유인은 줄어든다. 이처럼 통화량을 중심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이자율도 함께 올라가는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 LM 곡선으로, LM 곡선은 <그림>처럼 우상향하는 형태를 띤다. IS 곡선과 LM 곡선이 만나서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경제가 단기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다.

### ● IS-LM 곡선 핵심 정리

**IS 곡선 (우하향):** 이자율 ↓ → 투자 ↑ → 국민 소득 ↑ / 이자율 ↑ → 투자 ↓ → 국민 소득 ↓

**LM 곡선 (우상향):** 소득 ↑ → 화폐 수요 ↑ → 유동성 부족 → 이자율 ↑

※ IS-LM에서 통화량은 외생적(중앙은행이 외부에서 고정)으로 결정됨!

→ IS-LM 교차점 = 상품 시장과 화폐 시장의 동시 균형 = 단기 국민 소득 결정

☑ ㉠ IS-LM 모형: 중앙은행을 시장 밖 외부 주체로 설정

### ▶ [기출 연계] 2018학년도 수능 — 환율의 오버슈팅과 IS-LM의 “단기” 의미

“단기 국민 소득”이라는 워딩, 왜 “단기”가 붙을까?

IS-LM 모형은 단기(short-run)를 전제로 합니다. 단기에는 물가가 경직적(sticky)이라 시장이 충격에 즉각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 단기 물가 경직성의 논리는 2018학년도 수능 오버슈팅 지문의 핵심 논리와 정확히 같습니다!

#### [오버슈팅 지문의 단기·장기 구조 비교]

- 단기: 물가 경직성 → 국내 통화량 증가 시 실질 통화량 증가 → 시장 금리 하락 → 자본 유출 → 환율 과도 상승(오버슈팅!)
- 장기: 물가 신축성 → 물가 상승으로 실질 통화량 원래대로 복귀 → 금리 회복 → 환율이 구매력 평가설 기반 균형 환율로 수렴
- 자국 통화 가치와 환율은 반대관계 → 자국 통화 가치 상승 = 자국 환율 하락

#### [이 지문(IS-LM)의 단기·장기 구조]

- 단기: 물가 경직 → 통화량 or 금리 변화가 실물 경제(국민 소득)에 실제로 영향을 줌 → IS-LM 균형점에서 국민 소득 결정
- 장기: 물가 신축 → 명목 변수 변화가 실물에 영향 없음(화폐 중립성) → 고전학파 세계로 돌아감

☑ IS-LM이 “단기” 국민 소득을 분석하는 것은, 장기에는 물가 조정으로 균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지문에서 “장기” 논의가 없는 것은 케인스 모형 자체가 단기 분석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추후 장기 국민 소득 결정 논의가 새로운 지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 ◆ 외생적 통화량 고정 vs 테이퍼링 — 현실에서 통화량은 어떻게 움직였나?

IS-LM에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외생적으로 고정”한다는 가정은, 중앙은행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통화량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직접 조절한 대표적 사례가 있을까요?

#### [양적완화(QE)와 테이퍼링(Tapering)]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채권 매입으로 시중에 돈을 공급했습니다(양적완화, QE). 이는 통화량 증가 → 금리 하락 → 경기 부양의 흐름으로, IS-LM 모형에서 LM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효과와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회복되자 2013년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Tapering)”을 선언했습니다. 테이퍼링이란 이 양적완화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 — 즉 통화 공급 증가 속도를 늦추는 정책입니다.

#### [비교 정리]

- 외생적 통화량 고정 (IS-LM 가정):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일정하게 유지 → LM 곡선 고정
- 양적완화 (QE):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적극 늘림 → 유동성 증가 → 금리 하락 → LM 곡선 오른쪽 이동
- 테이퍼링: 통화 공급 증가를 서서히 줄임 → 유동성 감소 압력 → 금리 상승 → LM 곡선 왼쪽 이동에 해당

☑ IS-LM의 “외생적 고정”은 이상적 가정이며, 현실에서는 중앙은행이 테이퍼링처럼 상황에 따라 통화량을 능동적으로 조절해 왔습니다. IS-MP 모형이 등장한 배경 중 하나가 바로 중앙은행이 시장에 반응하는 내부 주체로 작동하는 현실을 모형에 반영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 ▶ [4문단] IS-LM 모형의 활용과 한계 → ㉠ IS-MP 모형의 등장

이 IS-LM 모형은 1950~60년대 거시 경제 정책의 기본 분석틀로 널리 ㉠ 활용되었다. 정부의 재정 확대나 세금 인하와 같은 정책적 변화는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며, 그 결과 일정한 금리 수준에서 총수요가 증가하여 국민 소득이 상승하게 된다. 반대로 긴축 정책은 IS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 총수요를 줄임으로써 경기 과열을 억제할 수 있다. IS 곡선의 이동은 일정한 금리 수준에서 달성 가능한 국민 소득 수준 자체가 변화함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경제는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하게 된다. 즉 새로운 총수요와 총공급의 균형점이 형성된다. 그러나 IS-LM 모형은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한계를 드러냈다. 이후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현실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신케인스학파의 ㉠ IS-MP 모형이 등장하였다. IS-MP 모형은 기존의 IS 곡선을 유지하면서, 중앙은행이 경기 상황에 따라 기준 금리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보여 주는 MP 곡선을 사용한다.

#### ● IS 곡선 이동의 방향

재정 확대 / 세금 인하 → IS 곡선 오른쪽 이동 → 국민 소득 ↑

긴축 정책 / 세금 부과 → IS 곡선 왼쪽 이동 → 국민 소득 ↓

※ IS 곡선의 이동 = 특정 금리 수준에서 달성 가능한 국민 소득 수준 자체가 변화!

☑ IS-LM 한계: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불황 + 물가 상승) → 설명 불가

☑ IS-MP 등장 배경: 통화량이 아닌 금리를 정책 수단으로 삼는 현실적 모형

#### ◎ 헛갈리기 쉬운 포인트: IS 곡선도 이자율이 변수인데, 왜 기준금리 조정은 MP의 역할?

##### [기준금리 vs 시장금리]

##### ■ 기준금리 (Policy Rate, 정책금리)

: 중앙은행이 직접 결정하는 금리입니다. 시중 은행들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이며, IS-MP 모형에서 MP 곡선이 조정하는 것이 바로 이 기준금리입니다.

##### ■ 시장금리 (Market Interest Rate)

: 금융 시장에서 자금의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금리입니다 (예: 국채 금리, 예금 금리, 대출 금리 등). IS 곡선에서 투자와 소비에 영향을 주는 “이자율”이 바로 이 시장금리입니다.

##### [두 금리의 관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림 → 시중 은행이 더 싸게 자금 조달 → 대출 금리(시장금리) 하락 → 기업 투자·가계 소비 증가 → IS 곡선 위에서 점 이동(국민 소득 상승)

**[정리]**

- IS 곡선의 이자율 =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금리 (IS 곡선의 내생 변수)
- MP 곡선의 금리 = 중앙은행이 정책적으로 설정하는 기준금리 (MP 곡선의 정책 수단)

☑ IS에 이자율 변수가 있다고 해서 IS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IS는 “특정 시장금리 수준에서 국민 소득이 얼마가 되는가”를 보여주는 곡선입니다. 기준금리 조정 → 시장금리 변화 → IS 위에서 점이 이동하는 연쇄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 [5~6문단] ㉠ IS-MP 모형 — 금리 중심의 현실 반응형 모형

IS-LM 모형과 IS-MP 모형 모두 이자율을 모형 내부에서 결정되는 내생 변수로 다루고 있지만, LM 곡선은 통화량을 통제하는 주체로 중앙은행을 설정하여 중앙은행이 정부처럼 시장 밖에서 시장을 규율하고 조정한다고 간주한다. 반면 MP 곡선은 중앙은행을 시장 상황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경제 체제 내부의 주체로 설정한다. 따라서 MP 곡선에서 금리의 결정은 물가 상승률, 국민 소득 등 경제 내부 요인에 따라 내생적으로 조정되며 국민 소득의 변화로 인해 금리가 변하는 것은 곡선 위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총수요가 확대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인상하며, 금리 상승은 소비와 투자를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균형 상태로 이끈다. MP 곡선은 이러한 기준 금리 조정이 경기 상황에 반응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반영하므로, 일반적으로 LM 곡선처럼 우상향하는 형태를 띤다. 반면 외부 요인이 변할 때는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되는데,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 기조 자체를 변화하는 것은 그래프의 축에 없는 외부 요인의 변화이므로 MP 곡선을 이동시킨다. 만약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적 기조를 취하면 MP 곡선은 위쪽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적 기조를 취하면 아래쪽으로 이동하며 이 과정에서 금리와 국민 소득이 새롭게 조정되어 경제는 새로운 균형에 도달한다.

## ● MP 곡선 핵심: 점의 이동 vs 곡선 자체의 이동

**곡선 위 점의 이동:** 국민 소득 변화에 따라 금리가 내생적으로 조정 (경기 반응)

**곡선 자체 이동:** 정책 기조 변화라는 외부 요인

긴축 기조 → MP 곡선 위쪽 이동 / 완화 기조 → MP 곡선 아래쪽 이동

☑ IS 곡선 오른쪽 이동 → 국민 소득 ↑ → 중앙은행 금리 인상 (점의 이동)

이것은 MP 곡선 위에서의 '점의 이동'이지, MP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아님!

## ※ [수능 출제 포인트 경보] “선(곡선)의 이동” vs “점의 이동” — 절대 혼동 금지!

**MP 곡선에서:**

- 곡선 위 점의 이동: 국민 소득 변화 → 기준금리가 내생적으로 반응 (경기 반응, 모형 내부 작동)
- 곡선 자체의 이동: 정책 기조(긴축/완화) 변화라는 외부 요인 (중앙은행의 의지적 선택)

**IS 곡선에서:**

- 곡선 위 점의 이동: 이자율(시장금리) 변화 → 국민 소득이 내생적으로 반응
- 곡선 자체의 이동: 재정 정책·정부 지출·소비 심리 변화 등 외부 요인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함정]**

- ☒ "IS 곡선이 우이동했을 때 MP 곡선도 이동한다" → 틀림! MP 위에서 점만 이동해.
- ☒ "중앙은행이 완화적 기조로 전환하면 MP 위에서 점이 이동한다" → 틀림! 곡선 자체가 아래로 이동해.

**[더 넓은 시야: "선 vs 점"은 이 지문 밖에서도 반복되는 핵심 구도!]**

오버슈팅 기출(2018 수능)에서도 장기 균형(구매력 평가선) vs 단기 과조정(점의 이동)이 대립했으며, 경제 그래프를 다루는 지문 전반에서 "선의 이동 vs 점의 이동"은 반복 출제되는 핵심 구도입니다. 앞으로 어떤 경제 지문에서든 그래프가 나오면 "지금 선이 이동했는가, 점이 이동했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 선과 점의 대립 = 내생 vs 외생 = 모형의 자동 반응 vs 외부 개입 — 이 개념 쌍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 [7문단] IS-MP 모형의 의미 — 기대 형성과 정책 신뢰성**

중앙은행이 금리를 정책 목표로 삼게 된 이유는, 금융 시장의 규모와 자본 이동이 커진 현대 경제에서는 통화량만으로 유동성을 정밀하게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리를 정책 수단으로 삼는 IS-MP 모형은 현실 경제의 정책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울러 IS-MP 모형은 경제 주체들의 기대 변화가 총수요와 경기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은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을 예측하며 소비나 투자 결정을 내린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상황에 따라 금리를 어떻게 조정할지 예측 가능성이 높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다면, 가계와 기업은 장기적인 금리 안정과 물가 안정을 기대하게 되어 소비와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 반대로 중앙은행의 정책이 일관되지 않거나 예측하기 어렵다면, 경제 주체들은 향후 금리나 물가의 불확실성을 우려해 소비와 투자를 줄일 수 있다.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경제 주체들이 소비나 투자보다 현금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이는 자금이 시중에 머물며 실물 경제로의 확산이 지연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총수요가 위축되며 화폐에 대한 선호 증가로 인해 기준 금리 인하의 효과가 약화하기도 한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통화 정책의 파급력이 낮아지고, 중앙은행은 경기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정책 신호를 강화해야 한다. 이처럼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은 경제 주체들의 기대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단기적인 경제 변동의 폭과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 총수요: 한 경제 내에서 주어진 기간과 물가 수준하에 최종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총합.

※ 총공급: 주어진 기간과 물가 수준하에 국가 경제에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공급의 총합.

※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불황 중에도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상.

**● 불확실성의 연쇄 효과**

정책 불확실성 ↑ → 소비·투자 ↓ → IS 곡선 왼쪽 이동 → 총수요 위축  
+ 현금 보유 선호 → 자금 시중 머뭇 → 실물 경제 확산 지연 → 금리 인하 효과 약화

☑ 정책의 신뢰성·예측 가능성 = 기대 형성의 핵심 변수

☑ 중앙은행이 커뮤니케이션(공식 발표)으로 기대를 관리하는 것 = IS-MP 모형 시각에 부합

## ▶ [기출 연계 ①]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 통화 정책 신뢰성: 준칙주의 vs 재량주의

7문단의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 — 이 주제가 기출로 어떻게 출제됐는지 보자.

## [2018 6월 모평 지문 요약]

통화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 확보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 준칙주의(☉): 중앙은행이 특정 규칙(준칙)을 민간에 미리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지킴 → 예측 가능성 · 신뢰성 극대화
- 재량주의(☉):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신속적으로 정책을 바꿈 → 유연한 대응 가능, 단 신뢰성 약화 위험

## [이 지문(IS-MP 7문단)과 연결고리]

현재 지문의 7문단도 같은 내용입니다. 중앙은행의 정책이 예측 가능하고 신뢰받을 때(준칙주의적 성격):

가계·기업의 기대 안정 → IS 곡선 안정적 유지 → 통화 정책 파급력 강화

반대로 정책이 일관되지 않으면(재량주의 남용):

기대 불확실성 ↑ → IS 곡선 왼쪽 이동 → 현금 보유 선호 → 통화 정책 효과 약화

☑ “정책 신뢰성”과 “기대 형성”은 IS-MP 모형의 핵심이자 2018 6월 기출의 핵심 대립 구도입니다. 같은 개념이 “중앙은행의 운영 방식”(6월 기출)과 “경제 모형의 작동 원리”(현재 지문) 두 각도로 반복 출제된 사례입니다.

## ▶ [기출 연계 ②] 2012년 고2 9월 모의고사 — 통화주의 vs 케인스주의: 승수 효과와 구축 효과

이 지문 전체의 이론 구조와 가장 깊이 연결되는 기출입니다.

## [2012 고2 9월 지문 요약]

확장적 재정정책(정부 지출 증가)의 효과를 놓고 통화주의와 케인스주의가 대립하는 내용입니다.

## ▶ 통화주의 (LM 곡선 중시):

화폐 수요가 소득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 정부 지출 ↑ 시 화폐 수요 급증 → 이자율 급등 → 민간 투자 급감  
→ 구축 효과 극대화 → 재정 정책 효과 거의 없음

## ▶ 케인스주의 (IS 곡선 중시):

화폐 수요가 이자율과 역관계(투기적 수요 존재) → 정부 지출 ↑ 시 이자율 완만하게 상승 → 민간 투자 소폭 감소 → 승수 효과 > 구축 효과 → 재정 정책 효과 있음

## [핵심 개념]

- 승수 효과: 정부 지출 1원이 국민 소득을 그 몇 배로 증가시키는 효과 (IS 우이동의 이론적 근거!)
- 구축 효과: 정부 지출 증가 → 이자율 상승 → 민간 투자 감소 → 승수 효과를 부분 상쇄

## [현재 지문(IS-LM/IS-MP)과 연결]

• IS-LM에서 IS 우이동(재정 확대) → LM 교차점에서 이자율 상승 = 구축 효과 발생 (통화주의가 우려한 메커니즘!)

- IS-MP에서 IS 우이동 → MP 위에서 점이 우상방으로 이동(기준금리 인상) = 민간 투자 억제 = 구축 효과 유사 메커니즘
- ☑ 통화주의 = IS-LM에서 LM 곡선(화폐 시장)을 강조하는 입장
- ☑ 케인스주의 = IS-LM에서 IS 곡선(상품 시장)을 강조하는 입장
- ☑ IS-MP로 넘어오면서 이 논쟁의 무게 중심은 “통화량 조절”에서 “금리 정책 + 기대 관리”로 이동했습니다.

**★ 출제 포인트 & 기출 연계**

① 시험에서 노리는 포인트 (이것만 외워도 절반은 성공!)

1. ⊖ IS-LM vs ⊖ IS-MP의 핵심 차이  
LM: 중앙은행을 외부 주체, 통화량 외생 고정 / MP: 중앙은행을 내부 주체, 금리 내생 결정
2. MP 곡선: '점의 이동' vs '곡선 자체 이동'  
경기 반응(내생) → 점의 이동 / 정책 기조 변화(외부 요인) → 곡선 이동
3. IS 곡선 이동 방향과 원인  
재정 확대 → 오른쪽 / 긴축·불확실성 → 왼쪽
4. 불확실성과 통화 정책 파급력의 관계  
불확실성 ↑ → 현금 보유 선호 → 자금 머뭄 → 금리 인하 효과 약화
5. 어휘: '보유'의 사전적 의미 = '간직함' / '차지함(점유)'의 의미가 아님을 구별!

② 핵심 개념 한눈에 정리

개념	핵심 내용	키워드
케인스	총수요가 자동으로 총공급에 맞춰지지 않음 → 정부 정책 개입 필요	총수요 관리, 정부 지출 확대
IS 곡선	이자율 ↓ → 투자 ↑ → 국민 소득 ↑ / 우하향형	상품 시장 균형, 우하향
LM 곡선	소득 ↑ → 화폐 수요 ↑ → 이자율 ↑ / 통화량 외생 고정 / 우상향	화폐 시장 균형, 외생적 통화량, 우상향
⊖ IS-LM	상품+화폐 시장 동시 균형, 중앙은행=외부 주체, 1950~60년대 활용	단기 국민 소득 결정, 외생적
⊖ IS-MP	IS 곡선 + MP 곡선, 중앙은행=내부 주체, 금리 정책 수단, 신케인스학파	기대 형성, 내생적, 현실적
MP 곡선	경기 반응 → 점의 이동(내생) / 정책 기조 변화 → 곡선 이동(외부)	우상향, 내생적 금리 조정
불확실성	소비·투자 ↓ → IS 좌이동, 현금 보유 ↑ → 통화정책 파급력 약화	기대 형성, 정책 신뢰성

※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불황 중에도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상 → IS-LM 모형이 설명하지 못함

## 📖 추가 개념 심화 설명

### ① 정부지출 확대와 민생지원금 — IS 곡선 우이동으로 보는 현실 사례

#### ● 기본 원리: 정부지출 확대 → IS 곡선 우이동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IS 곡선은 특정 금리( $r$ ) 수준에서 달성할 수 있는 국민 소득( $Y$ )의 집합입니다. 정부가 돈을 더 많이 쓰면, 같은 금리 수준에서도 시중의 수요가 늘어나 국민 소득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 ● 민생지원금 = 정부지출 확대의 현실 사례

2025년 한국 정부가 시행한 민생지원금(국민 1인당 25만 원)은 IS-MP 모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비 위축으로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 상황에서, 정부가 민생지원금을 배부하여 가계의 소비를 직접 늘리면, 이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어지지는:

**민생지원금 배부 → 가계 소비 증가 → 총수요 증가 → IS 곡선 우이동**

**IS 우이동 → MP 곡선을 따라 점이 이동하며 그 결과 국민 소득 상승, 금리 상승**

**국민 소득 상승 → 중앙은행이 물가 압력 우려해 금리 인상 방향으로 반응 (MP 곡선 위의 점의 이동)**

☑ 핵심: MP 곡선 자체는 이동하지 않아! IS 곡선 우이동으로 인한 국민 소득 변화에 반응하여 금리가 자동 조정되는 것 = 곡선 위에서의 점의 이동 (내생적)

### ② 오일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 — IS-LM 모형이 한계를 드러낸 이유

#### ◇ 오일쇼크란 무엇인가?

1973년 중동 전쟁(4차 중동전쟁) 이후 OPEC(석유 수출국 기구)이 원유 공급을 급격히 줄여 원유 가격이 4배 이상 수직 상승한 사건입니다.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자 전 세계 경제가 동시에 두 가지 문제를 겪었습니다: 경기 불황 + 물가 상승.

#### ◇ 스태그플레이션이란?

stagnation(불황) + inflation(물가상승)의 합성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가와 경기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 경기가 좋으면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나빠지면 물가가 안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이 두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는 비정상적 현상입니다.

#### ◇ IS-LM 모형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

IS-LM 모형은 수요 측 충격(소비와 투자 변화)은 잘 설명하지만, 공급 측 충격(생산 비용 증가)을 모형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가정: 경기 불황 시 정부는 확장 정책(IS 우이동) 실시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는 물가를 더 올려!
- 가정: 물가 잡는 긴축 정책(IS 좌이동) 실시하면, 이미 나빠진 경기가 더 비참하게 됩니다!
- 결론: IS-LM 모형에서 경기와 물가는 트레이드오프 관계뿐 — 둘이 동시에 나빠지는 상황은 물론 설명 불가!

이것이 IS-LM의 한계.

☑ 간단히 요약: 유가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 IS-LM 방정식으로는 "경기는 나빠지는데 물가는 올라오는 현상"을 표현할 수 없어 → IS-MP 모형 등장 배경!

### ③ 총수요와 국민 소득의 상관관계

#### ● 총수요(AD)란 무엇인가?

한 가지 경제에서 가계, 기업, 정부, 해외 부문이 사고 싶어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 = 소비(C) + 투자(I) + 정부 지출(G) + 순수출(X-M).

#### ● 총수요 ↑ 시 국민 소득은 원칙적으로 ↑ 한다

간단한 논리: 사람들이 상품을 많이 구매하려는 의지가 높아지면(투자가 늘어나면, 정부가 돈을 더 쓰면, 수출이 늘어나면) 생산한 사람들이 더 많은 소득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소득이 증가합니다.

#### ● IS-MP 모형에서 보는 상관관계

IS 곡선은 본질: 특정 금리(r) 수준에서 가계와 기업이 얼마나 소비와 투자를 할 지 결정하면 달성되는 국민 소득을 나타내. 즉, IS 곡선 위의 모든 점은 "상품 시장의 균형 상태"이다.

▶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 같은 금리에서도 더 많은 국민 소득이 실현 가능 총수요 증가!

▶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 = 같은 금리에서 더 적은 국민 소득 실현 가능 총수요 위축!

☑ 핵심 요약: 총수요 증가 → IS 우이동 → IS와 MP의 교차점이 우측으로 이동 → 국민 소득 ↑ 및 금리 ↑(중앙은행 반응)

### ④ MP 곡선 그래프 시각화

